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부담과 보상감

김 오 남

대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요약) 본고는 손자녀의 양육에서 경험한 조부모의 부담과 보상감, 그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현황 등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고서 조손가족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한 글이다. 손자녀의 양육에서 경험한 조부모의 부담들로는 건강이나 경제 문제, 가족관계의 악화, 양육의 어려움, 심리적 문제, 사회적 지지의 부족 등이 있었던 반면, 보상감의 경험들도 신체적, 경제적, 및 사회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존재했다. 현재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조손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위기가정서비스, 빈곤가정위기지원사업과 결식아동급식지원 사업 등이 제공되고 있지만, 조손가족을 위한 정책과제로 조부모의 신체적 건강증진이나 양육스트레스감소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조손가정의 경제적 지원, 자조모임의 결성지원을 비롯하여 보상감을 강화시켜주는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 조손가정을 보다 현실적인 복지체계에 편입시키는 것 등을 제시했다.

[Key words: 사회복지서비스, 손자녀 양육, 양육 부담, 양육 보상감, 조손가족]

이 논문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526-702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72번지 대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오남 교수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자의 e-mail 주소는 onk@mail.daebul.ac.kr입니다.

서 론

부모의 이혼, 실직, 사망, 질병, 그리고 가출 등 가족해체로 인해 조부모가 성인자녀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일차적으로 돌보는 조손가족¹⁾이 증가하고 있다. 조손가족은 1세대 조부모와 3세대인 손자녀로 구성된 가족으로서, 자녀의 양육 능력을 상실한 2세대 성인자녀를 대신하여 손자녀의 양육 책임을 조부모가 일차적으로 전담하면서 대리부모 혹은 대리양육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의 가족을 일컫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도의 조손가구는 전국적으로 전체 세대의 약 0.3%에 불과하였지만,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그 절대 수는 1만 3천여 가구가 증가하여 58,101가구인 것으로 증가율이 무려 35.1%나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5, 통계청).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증가율이 9.98%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편이다.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원인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조손가족이 가족해체의 결과라는 점에 근거하여 (Burnette, 1998), 조손가족 증가의 원인을 가족해체의 원인에서 추정해 볼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가 경험하는 가족해체의 주요 원인은 부나 모가 사망하거나, 혹은 이혼, 가출, 경제적 결핍, 혹은 미혼모 등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 중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동기는 대다수 자녀의 이혼과 관련된다 (배태순, 2000). 또 조손가족의 형성 원인은 자녀들의 이혼, 수감, 마약이나

1) 미국에서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를 grandparent raising grandchildren, custodial grandparent, grandparent as caregiver, grandparents as parents 등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또 그 가정을 grandfamily, grandparent-headed home, skipped-generation household, second-generation parenthood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Burnette, 1997; Jendrek, 1994).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처럼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에 대한 표현을 조부모손자녀세대 (신은정, 2004), 조부모·손자녀 가족 (박창기, 2002), 조손가정 (최해경, 2002), 조손가족 (김미혜·김혜선, 2004; 김혜선, 2004; 박경애, 2007; 이희섭, 2005), 조손세대(김승훈, 2005; 이화진, 2004), 조부모가구 (윤승희, 2005) 등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에 대한 공식적인 개념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대리 양육자로서 조부모의 법적 권한도 없다 (김미혜·김혜선, 2004). 곧 우리나라에서의 조손가족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손자녀 양육과 조부모 부담

알코올 등 약물남용, 살인, AIDS, 정신질환 등이며, 특히 자녀의 약물 중독은 대부분의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Burton, 1992; Clingempel, Colyar, Brand, & Hetherington, 1992; Dowdell, 1995; Dressel & Barnhill, 1994; Joslin & Bouard, 1995; Kathryn, 2000; Kelly, 1993; Kelly & Danoto, 1995).

조손가족의 조부모들은 손자녀의 양육부담, 성인자녀들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했다는 자책감, 본인의 노화로 인한 생활고 등을 해결해야 하는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Smith & Dannison, 2002). 조손가족의 열악한 상황은 양육 책임자인 조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와 동시에 양육의 대상인 손자녀의 발달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에 조손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손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조부모²⁾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여 그 실태뿐 아니라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이 소개되었으나 우리나라의 상황은 초보적 단계인 실정이다.

그 동안 우리 문화권에서 시도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우선 초창기 연구들은 주로 가족의 실태와 욕구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 남명숙, 1999; 박창기, 2002). 그 후의 연구들은 손자녀 양육 상황이 조부모에게 미친 영향을 살피는 것들이었는데, 주로 양육 스트레스, 우울증상, 심리적 디스트레스 등을 검증하고 있었다 (김미혜·김혜선, 2004; 김혜선, 2005; 윤승희, 2005; 최해경, 2002). 또한 조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개입프로그램의 효과를 검토하는 연구들도 있었으며 (서혜석,

2) 전담 양육자로서 조부모에 대한 기준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U.S. Census Bureau, 2000). 첫째, 조부모들이 18세 이하의 손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어야 하는데, 18세 이상의 손자녀이거나, 동일한 건물이라도 동일한 아파트에 주거하지 않는 조부모는 제외된다. 둘째, 책임성 여부로 조부모들은 함께 사는 손자녀들의 기본적 의식주 욕구에 대해서 양육자로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손자녀의 기본적 욕구를 책임지는 기준으로, 조부모가 자녀보다 최근 손자녀의 기본적인 생활욕구에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어야 한다. 즉, 손자녀와 합법적인 관계(친족, 입양, 후견)가 있고 일차적인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조부모를 일컫는다 (Jendrek, 1994).

2004; 정란, 2002), 이와 반대로 조부모 역할을 통해서 경험한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활만족도나 긍정적 보상 경험을 살펴본 연구들도 있었다 (김미혜 · 김혜선, 2004; 박경애, 2007). 조손가족을 다룬 선행연구에서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 두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본다.

첫째, 조부모와 손자녀는 밀도 있는 세대 간 심리적 친밀감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특히 조부보다 조모에게서 더 두드러졌다. 조손가족의 조부모와 손자녀의 심리적 친밀감 기저에는 상호 호혜의 관계가 내재해 있는데, 때로 이러한 관계는 교환이론이나 이타주의로 설명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부모(조부모)에 대한 자녀(손자녀)의 무력감과 노년기 부모의 무력감이 접점을 이루어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조부모들은 손자녀에게 과거를 이해하는 안목, 지지, 상담, 및 친구와 같은 관계들을 손자녀에게 제공하며, 손자녀들은 사랑, 및 친구와 같은 정서적 관계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Troll, 1983).

둘째, 조부모가 친손자녀를 돌보는 비율이 외손자녀를 돌보는 비율보다 거의 2배 정도 높았다 (이재연 · 김명숙, 2000). 이는 우리 사회에서는 이혼 및 가출 등 가족해체로 이혼한 며느리에게 친손자녀를 맡길 수 없다는 가부장적 혈연중심의 사고방식이 작용한 결과인데, 이혼했을 때 통상 아이의 양육을 여성에서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미국에서 할머니가 외손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맡는 경우와 매우 대조적이다 (Clingempeel 등, 1992). 본고에서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이 경험하는 문제들과 함께 손자녀 양육에서 얻게 되는 보상감 등을 제시하고, 또 이들 가족에게 지원되는 서비스현황을 살펴보면서 그에 대한 정책과제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손자녀의 양육에 따른 조부모 부담

건강

Dowdell(1995)에 의하면, 조부모 양육자들의 약 45%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문제와 질병이 있다고 하였다. 조부모 양

손자녀 양육과 조부모 부담

육자들의 건강상태는 양육을 하기 전부터 양호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양육과 더불어 건강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높은데, 한 연구에서는 38%가 손자녀를 맡아 키우면서 건강이 나빠졌으며, 50%정도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었으나 1/3이 지난 3년 동안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 (Minkler, Driver, Roe, & Bedeian, 1993). 우리나라 조부모들도 손자녀 양육 후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응답이 전체의 69%를 차지하였고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 45%가 손자녀 양육으로 예전보다 더 피곤하고, 다리불편, 어깨통증, 허리아픔 등이 생겼다고 호소하였다 (남명숙, 1999).

손자녀를 양육하는 노인들의 건강 문제는 중년기 후반이나 노년기의 특성상 체력 저하에 기인할 수도 있지만, 육아활동으로 인해 건강의 악화가 더 심해졌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박창기, 2002; Dowdell, 1995; Minkler, Roe, & Price, 1992). 조부모들이 호소하는 건강상의 주된 증상으로는 부어오름과 마비증상이 결합된 상태를 비롯하여 허리나 가슴 통증 호소가 빈번했으며, 또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당뇨, 관절염 등도 흔하게 관찰되는 만성질환이었는데, 이러한 건강상태 문제는 손자녀 양육 경험이 없는 조부모에 매우 심한 편이었다 (Dowdell, 1995; Minkler 등, 1992). 또한 조손가족 조부모의 건강 상태는 부모나 배우자 수발을 전담하는 다른 집단과 비교할 경우에도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trawbridge, Wallhagen, Shema, & Kaplan, 1997).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Solomon과 Marx(1995)는 손자녀 양육 자체가 조부모의 건강을 악화시켰다고 보는 대신에 조부모가 그 양육 상황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였다.

경제

손자녀 양육에 뒤따르는 조부모들의 생활변화에서 건강상 문제 다음으로 빈번히 지적되는 분야가 경제적 형편의 악화이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 남명숙, 1999; 박창기, 2002; Burton, 1992; Dowdell, 1995). 조모-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중 빈곤가구 비율이 높은 편인데, 특히 조부가 안 계신 상태로 조모 혼자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경

제적인 빈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정, 2004). 일반적으로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좋을수록 우울 증상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고, 또 경제력과 조부모의 대리양육역할에 대한 만족도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김미영, 2001).

가족 관계

손자녀 양육은 조부모의 가족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조부모들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조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과 관계가 더 가까워졌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하기도 하지만, 그 비율은 전체 조부모의 20%에 정도에 불과하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 Bowers & Myers, 1999). 반면 약 35%의 조부모들이 손자녀 양육을 시작할 이후로 자녀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보고하는데 (Bowers & Myers, 1999),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 비율이 매우 비슷한 편이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 조부모들은 양육하고 있는 손자녀와 관련된 문제를 손자녀의 부모인 자녀들과 의논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거나 거리가 멀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Bowers & Myers, 1999), 손자녀의 양육 방법에서 자녀와 세대차이로 인해 갈등을 자주 겪고 있다 (Kelly & Danato, 1995).

역시 조손가족에서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는 서로의 정신건강 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도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조부와 조모를 비교할 때 조모가 조부보다 손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데, 조모는 손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 손자녀가 부적절한 부모로부터 받은 유해한 영향을 완화하며, 손자녀는 조부와 관계를 통해 남성과 가깝게 지내는 역할의 습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손자녀의 연령이 높거나, 남성이거나, 또 행동상의 문제가 많을수록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유는 손자녀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주장이 강해지고 또 상대적으로 박탈된 자신의 가정환경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서 가족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최혜지, 2006; Hayslip, Shore, Henderson, & Lambert, 1998).

조부모는 손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없을 때에는 관계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서 간혹 손자녀의 양육을 통해 생의 만족감을 얻기도 하지만, 자녀세대가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자신이 손자녀의 일차 양육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스트레스와 정서적 고통을 겪게 된다 (Roithmayr, 2001).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에서 겪는 어려움의 호소 내용을 보면, 손자녀가 말을 잘 듣지 않거나, 힘이 부치거나, 교육을 위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학습지도가 어렵거나 등 매우 다양하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 조부모들은 손자녀가 특히 행동이나 정서상의 부적응을 보일 때 그에 대처할 준비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거나 손자녀의 행동규제나 대처전략에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허다하다 (Brown, 2003). 곧 손자녀의 양육을 전담하는 조부모들은 부분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조부모들에 비해 역할의 제한성, 사회적 고립, 재정적 어려움이 더 심한 편이다 (Kelly, 1993).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담감을 경험하는데 관련된 변인들은 매우 다양하다. 그 중 조부모와 관련된 대표적인 것들은 자신의 건강,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의 유무, 돌보는 시간, 돌보는 역할에 대한 자신감, 돌보게 된 동기 등이다. 곧, 조부모의 건강이 좋지 못할 때 (김소희, 1997), 조부모의 연령이 높았을 때 (김소희, 1997; 박경란, 1994), 조부모의 학력이 낮았을 때 (김소희, 1997), 배우자가 없는 조부모일 때 (Dowdell, 1995), 돌보는 시간이 길었을 때 (Musil, 1998), 돌보아야 하는 손자녀의 수가 많을 때 (Dowdell, 1995), 손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자녀의 특성으로는 손자녀의 나이, 성별, 친족관계 등이 있었는데, 먼저 손자녀의 나이가 많았을 때 조부모들은 양육부담을 더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Dowdell, 1995; Kelly, 1993). 손자녀의 성별에 따라서 조부는 손녀보다 손자를 더 가깝게 느꼈고 (Kahana & Kahana, 1970), 손자들보다는 손녀들이 조부모와 활동을 더 많이 공유하였다 (Kennedy, 1992). 역시 친손자녀보다 외손자녀를 돌보고 있을 때 조부모들의 양육부담은 더 높았으며 (남명숙, 1999), 가족원수가 적

을 때와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생활변화를 크게 느꼈을 때 양육부담을 더 높게 느끼고 있었다 (옥경희, 2005).

심리적 부담

조부모는 손자녀의 양육과정에서 심리적 상처나 부담을 심하게 경험하기도 한다. 그들은 손자녀에 대한 보호자 역할을 하더라도 젊은 시절처럼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대신에 단순히 상징적이거나 도구적인 보호자밖에 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와 같은 스트레스는 시간 경과에 따라 삶에 대한 불만족, 불안이나 우울 증상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하게 만든다 (Dowdell, 1995; Kelly, 1993).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은 남녀 모두 우울증상을 경험하는데, 조모의 경우 손자녀와 동거하게 되면서 우울증상이 증가한 반면, 조부의 경우 손자녀와 동거하다가 별거할 때 우울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조부들이 양육하는 일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손자녀가 있을 때 심리적 이점(예, 친구처럼 관계를 유지함)을 얻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Szinovacz, 1998).

조부모의 연령은 심리적 안녕을 결정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 연령이 낮은 조부모들이 우울이나 불안 증상이 더 심한 편이다 (백경숙·김영란, 2006; Burnette, 1999; Sands & Goldberg-Glen, 2000). 배우자 유무도 손자녀의 양육에서 지각한 심리적 안녕과 관련이 높는데,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이 심리적 안녕상태가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미영, 2001; 박경숙·김영란, 2006; 배진희, 2007; Dowdell, 1995; Kennedy & Keeney, 1988; Musil, 1998). 그러나 단순히 배우자 유무보다는 손자녀의 양육에서 배우자가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 등에 따른 심리적 안녕의 차이를 더 정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강상태와 심리적 문제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면, 조부모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우울증상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미영, 2001; 김혜선, 2005; 배진희, 2007; 신혜섭, 1999; Burnette, 1999; Minkler 등, 1992). 또 조부모는 자신의 신체적 건강을 긍정적으로 인

손자녀 양육과 조부모 부담

식할수록 생활 만족도나 자존감을 더 높게 보고하고 있었다 (김미영, 2001; 김미혜 · 김혜선, 2004; Dowdell, 1995). 아울러 손자녀의 건강상태도 조부모의 행복 및 우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었는데, 조부모는 손자녀가 심리적 · 신체적 건강상의 문제로 특수한 욕구를 지닐 때 불안을 비롯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다 (Grant, 2000; Hayslip 등, 1998; Sands & Goldberg-Glen, 2000).

손자녀의 양육기간에 따라서 조부모의 심리적 안녕이 다른가를 살펴본 연구들은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즉, 손자녀의 양육기간이 긴 조부모일수록 불안이나 우울증상이 더 높고 삶의 만족도가 더 낮다는 보고도 있지만 (김미영, 2001; 백경숙 · 김영란, 2006; Minkler 등, 1992; Sands & Goldberg-Glen, 2000), 양육기간과 조부모의 스트레스는 유의미한 관련이 없다는 보고도 있다 (Musil, 1998). 또 손자녀 양육에 부과되는 책임감도 조부모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반적으로 책임이 크다고 지각한 조부모일수록 분개, 죄책감, 좌절감, 피로감, 외로움, 텃에 걸린 느낌 등의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더 갖게 된다 (Jendrek, 1993). 이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대다수가 부모 노릇과 조부모 노릇이라는 이중적인 역할을 떠맡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Moen, Robison, & Dempster-McClain, 1995).

사회적 지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가구 내 다른 성인이 살고 있는지, 친구나 친척이 자주 방문하는지, 절친한 사람이 있는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지 등의 비공식적 지원이 조부모의 우울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김정은, 2002; 최해경, 2002; Burnette, 1999, 2000). 그 중에서도 한국의 조부모들은 특히 가족의 도구적 및 금전적 지지가 조부모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최혜지, 2006).

조손가족 조부모들은 손자녀의 양육과정에서 사회적 고립을 심하게 경험한다 (Minkler & Roe, 1996). 조부모들은 손자녀에게 자신의 시간, 돈,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가족,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하고 자신을 위해 보낼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하며 (Jendrek, 1993), 손자녀의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조부모들은 필요한 수입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접촉도 대부분 상실하고 있다 (Burton, 1992; Minkler, 1994). 조손가족 조부모들이 저소득층이거나 여성이었을 때 친척과 가족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비율이 더 높는데, 여성노인들은 손자녀에게 지지를 제공하는 데 어려운 일이나 고민이 있어도 남편이 아닌 다른 의논상대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없는 노인의 비율도 매우 높은 편이었다 (김미혜 · 김혜선, 2004; 최혜경, 2002; Burton, 1992).

손자녀의 양육에서 얻은 보상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과정에서 보상감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보상감 때문에 자녀와의 갈등이 완화되기도 한다 (김문정, 2006). 그들이 경험하는 보상감의 내용은 매우 다양한데, 예를 들면, 조부모들은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손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인지하는 보람과 만족으로 인하여 건강상의 문제를 별로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손자녀의 양육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이상현, 2005). 아울러 조부모들은 손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이웃, 친지 등으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이나 후원 및 용돈을 제공받기도 하며 (김정은, 2002; 박경애, 2007), 가족의 유대관계 증진을 포함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친구를 얻을 수 있다 (Jendrek, 1994).

조부모들은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충만함과 새로운 의미 그리고 목적을 발견하기도 하는데, 손자녀에게 지혜와 경험을 제공하여 자기 존재에 대한 생성감을 얻거나 손자녀의 성장이나 발달에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여 자긍심이 높아지기도 한다 (김문정, 2006; Kennedy & Keeney, 1988). 그들은 과거에 부모역할을 하면서 경험했던 다양한 감정들을 다시 맛볼 수 있는 기회로 여기거나 대리양육으로 인해 경험하지 못했던 부모역할의 기회를 다시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기도 한다 (Burton, 1992). 그렇기 때문에 조부모들

은 심지어 손자녀들이 말썽을 피우거나 자신을 귀찮아하는 것마저도 삶의 위안으로 여기기도 한다 (이상현, 2005).

양육과정에서 지각하는 보상감과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보면, 성별이나 연령, 월평균 소득, 성인자녀 접촉유무, 돌봄 기간 및 거주지역 등 매우 다양하다 (박경애, 2007).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부양자 역할 수행에 적합하게 사회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돌봄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보상감을 인지하는 수준도 더 높으며, 연령 증가에 따라 보상감의 수준이 높아지며, 또 부양자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보상감도 높게 나타나는 편이었다 (박경애, 2007; Goodman, 2006).

손자녀를 돌보는 동안 손자녀의 부모인 성인자녀와 접촉 여부는 조부모의 양육에 따른 보상감과 관련이 있는데 (박창기, 2002), 조부모의 입장에서 성인자녀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성인자녀와 손자녀를 연결해줄 수 있을 때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상현, 2005). 양육 기간에 대해서는 부양기간이 부양자의 부양부담을 가증시킬 뿐 보상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Walker, Martin, & Jones, 1992), 사회교환이론에 따라서 양육기간이 길수록 보상감을 높게 지각하면서 관계의 질이 더 높다는 보고도 있다 (신화용·조병은, 2004).

또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손자녀를 돌보는 데 따른 조모의 만족이 높으며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혜·김혜선, 2004; Bowers & Myers, 1999; Musil, 1998). 자존감이 높은 조부모일수록 능동적으로 자녀 돌봄에 참여하여 조부모역할 지각이나 역할수행에 있어 자신감과 만족감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김문정, 2006). 특히 한국의 가족주의 가치관은 조부모가 성인자녀를 대리하여 부모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김문정, 2006). 가족응집력은 돌봄 보상감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세대간 유대관계에서 조부모와 손자녀간 친밀감이 높고 애정이 강한 관계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박창기, 2002; 이희섭, 2005; Walker 등, 1992).

복지 서비스 현황

미국의 조손가족 제도

미국에서는 아동 학대나 방임이 발생할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해 아동들을 부모로부터 단기간 또는 장기간 격리시키는 정책을 실시하는데, 만약 친부모가 자녀인 아동을 돌보기가 힘든 상황으로 판명되면 친족 보호(kinship care)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박경애, 2007). 미국에서 조손가족을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배경은 아동을 가족과 단절시키지 않은 상태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및 기존의 공식적인 위탁양육제도(foster care system)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만약 조부모나 친척이 아동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재로서는 하는 수 없이 아동을 기존의 위탁양육제도에 의거해 돌볼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위탁양육제도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생겨 위탁양육제도에 수반되는 복지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조손가족이라는 대안적 정책이 필요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조손가족 조부모와 손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프로그램이 매우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조부모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완화와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지지집단 활동이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대리부모로서 조부모가 직면하게 되는 도전과 문제들, 즉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정부지원의 부족, 법적문제, 일상생활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 소외 등에 대한 접근과 이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제시되고 있다 (박경애, 2007; Edwards, 1998; Jendrek, 1993; Minkler 등, 1994). 이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본다 (박경애, 2007).

우선 60세 이상 노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데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NFCSP(National Family Caregiver Support Program)가 있는데, 이는 가족양육자들에게 상담, 지지집단 조직, 양육자 의사결정 및 역할훈련, 보육휴식, 양육자의 양육환경 보완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친족양

손자녀 양육과 조부모 부담

육 안내 프로그램(Kinship Navigator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조손가족을 위한 재정적 지원으로 친족위탁양육(Relative Foster Care)급여가 있는데, 이는 친척과 동거하는 아동을 위한 연방정부의 위탁양육 지원혜택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양육급여는 원래 친척이 아닌 위탁양육자에게만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조손가족 및 친족위탁가정이 증가함과 동시에 1970년대의 “Youakim”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지원대상이 친족양육가정까지 확대되었다.

아동을 입양할 때 보조금을 지불하는 입양보조프로그램(AAP: Adoption Assistance Program)과 친족양육 가정을 위한 후견인 보조 프로그램(Guardian Subsidies program) 등이 있다. 위탁양육에 따른 혜택은 매월 양육급여와 Medicaid의 의료지원 서비스 및 기타 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 빈곤가정에 대한 임시지원(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부양아동만을 위한 아동한정보조금(Child-only Grant), 그리고 가족전체가 포함된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된다. 여기에서 TANF는 거의 60년 동안 연방정부 공적프로그램이던 AFDC(Aid to Family with Development Children)를 계승하여 1997년 7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적극적인 공적 부조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지집단(support group), 빈곤가정을 위한 임시지원, 의료적 지원 범위와 서비스, 아동보육 및 지원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밖에 주택, 법률서비스, 저소득층 이용자를 위한 일시적인 보호 휴식(respite care) 등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또 아동한정보조금은 아이를 키우는 조부모와 기타 친족들에게 TANF를 통해 실시되는 현금지원을 이른다.

아동의 건강보호를 위한 저소득층 의료지원체계인 Medicaid, 아동건강보장 프로그램인 CHIP(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영양지원 프로그램인 Food Stamp Program, 그리고 여성과 유아 및 아동을 위한 특별 영양 보충 프로그램(WIC: the Women, Infants, and Children Program)이 있다. 여기에서 CHIP는 소득이 높아서 Medicaid의 자격을 갖추기 어려운 가족의 아동을 위한 의료보장 프로그램으로 연방 빈곤수준의 200%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족에서 자라는 19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WIC 프로

그랩은 Supplemented Nutrition Program을 통하여 임신을 했거나 5세 미만의 아동을 저소득층 여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예를 들면, voucher로 지정된 특정 음식(계란, 우유, 유아용 조제분유) 등을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세대간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GU(Generations United)라는 전국조직이 있다. 이 조직은 “KinNET Project”를 통해 “공식적” 위탁제도 하에서 아동을 돌보고 있는 조부모와 친족들을 위한 지지집단의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또 AARP(American Association of the Retired Persons)의 조부모 정보센터(Grandparent Information Center)는 전국에 걸쳐 700개 이상의 지지집단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비공식적인 아동보호자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또 Brookdale Foundation은 비공식적 아동보호자를 위한 RAPP(Relative As Parents Program)을 199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그밖에 조부모지지집단(Grandparent Support Group)이 있어서 아동들을 등하교 시키는 일과 공공업무를 보는 일을 돕고, 또 다른 가족지원집단(Family Support Group) 있어서 지역의 가정과 조부모 가족을 연결하여 친구가족클럽(Family Circle Friends)을 형성해주고 있다.

Detroit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GUIDE Project가 있는데, 이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스트레스 완화와 자아존중감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밖에 자식에 대한 분노나 가책, 적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손자녀의 대리부모역할을 수행하는 조부모의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상담 서비스, 주정부 조부모가족(Grand-family house)프로그램에 따라 마련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조손가족을 위해 세대공동학습(Generation Learning Together)이라는 현장 프로그램(예, Boston의 YWCA에서 실시한 바에 의하면, 임대주택 조손가족 거주자들에게 컴퓨터 학습센터와 학교 숙제 보조), 노인을 위한 fitness program을 들 수 있고, 그 외에도 조부모와 친족양육자에게 혜택을 주게 되는 정책변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손자녀를 돌보는 지역사회내의 조부모, 지역 활동가와 서비스 제공자들로 이루어진 task force team을 운영하는 것 등도 있다.

한국의 조손가족에 대한 제도적 지원

우리나라에서는 조손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현재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가정위탁지원제도 및 기타 보육 및 교육정책과의 연계를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손가족 구성원인 조부모와 손자녀를 수급권자로 선정했을 경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을 지급해준다. 법적 지원 서비스에 의해서는 위기가정 서비스, 빈곤가정 위기지원사업,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등을 통해 부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데, 가정위탁사업에 의해서 조손가족의 손자녀는 현재 조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대리양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양육보조금으로 아동 1인당 7만원이 지급된다 (<표 1> 참조). 그러나 가정위탁지원제도에 의해 보조되는 월 7만원의 보조금은 손자녀를 돌보는 실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며, 심지어 교육과 양육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시설로 아동을 이관하게 하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그밖에 보육정책을 통해서 조손가족 아동은 보육비 지원, 교육지원 정책의 일환인 농촌지역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교육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지원사업,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하고

<표 1> 보호형태별 아동지원 비용 현황³⁾

보호형태	가정위탁양육비	소년소녀가장지원	시설아동지원
양육비	70,000원/인	70,000원/인	439,000원/인
기타	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 시 급여별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 시 급여별도 및 후원금 연계	후원금 연계

3) 2004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예산

있는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조손가족 조부모의 경우 근로와 자활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만이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박창기, 2002), 또한 조손가족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여서 소년소녀가장 가구와 노인가구의 주 수입원인 정부나 사회도움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 (김정은, 2002; 이상현, 2005). 현재 각종 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조부모인 노인은 전체노인의 6.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부모이면서 빈곤노인층의 경우 대부분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경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현, 2005).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 내용들도 현재로서는 이들을 돌보는 조부모들보다도 손자녀에 대한 지원이 편중되어 있는 실정인데 (<표 2> 참조), 조부모들을 위한 정책은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로 연금이 전부일 정도로 미흡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모들이 희망하는 사회 정서적 서비스로 손자녀양육 노인을 위한 지원보다는 손자녀를 위한 지원을 더 필요로 하였는데, 가사지원이나 상담, 부모(노인생활)교육프로그램 지원들보다도 손자녀를 위한 후원이나 결연, 학습지원의 지원을 더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

정책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원사업 이외에도 사회복지 실천의 차원에서 조손가족을 지원하는 접근은 주로 지역복지관 중심의 개입프로그램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내용은 상담 (개별, 집단 및 가족), 나들이·여행·캠프 등의 가족행사, 조부모의 건강상태 검진,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향상, 도시락 및 반찬 등의 가사지원, 가족기능강화, 아동의 학습능력 및 사회적응기술향상, 조손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등을 비롯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한 세탁, 식사준비, 청소 등의 가사지원 서비스, 한시적이고 소액이지만 복지관이나 종교기관 후원회를 통한 양육비 보조, 복지관이나 지역연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료혜택 (예, 수술이나 입원), 보건소 소속 간호사들의 방문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이상현, 2005).

한편 제도권에서는 2003년 전국 16개 시도에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립 되어 이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 현재 전국적으로 18개 가

손자녀 양육과 조부모 부담

〈표 2〉 한국의 조손가족 지원서비스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거실태에 따른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가 보다 나은 주거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주거급여로 하며, 최저주거비는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17.7% 지급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빈곤의 세대전승 차단을 목적으로 수급자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고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와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에 대하여 학비(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급
의료급여	2000년 5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변경되면서 급여일수 제한이 폐지되었고, 2003년 1월부터 수급자의 연령이 61세에서 65세로 변경. 1종과 2종으로 수급권자를 구분하였고,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1종으로 하여 제공
위기가정 서비스	주 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 파산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이혼, 가족원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 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각종 상황 악화로 가계파탄에 이른 경우 차등지원하며 최저생계비중 식료비품(4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계비로 지급. 또한 검사나 치료비용 등 본인부담금 1인당 100만원 이내에서 의료비 지원 실시,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닌 조손가족의 일부에게 지원
빈곤가정 위기지원 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층 가정에 가구당 생계비 60만원과 신청당시 입원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에 대해 의료비 200만원 지원; 결연사업으로 시설보호 아동,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불우한 아동과 지역사회 인사와의 결연을 통해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통해 이웃 사랑의 사회 기풍을 조성하고 불우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짐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하는 아동에게 급식지원을 통해 성장기 아동들의 심신발달 도모와 사회인으로서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하루 한 끼 이상 실제로 결식하는 아동에게 연중 계속하여 취약아동의 경우 1인1식을 지원

4) 박경애(2007)를 참조하여 저자가 재구성한 것임.

정위탁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 들어와서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조부모-손자녀 세대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조손세대”라는 이름으로 재가복지서비스 및 사례관리를 하고 있거나 별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도 하지만 (박경애, 2007; 신은정, 2004), 조손가족을 한 단위로 보면서 실시되는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실천의 개입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또한 방대한 지역을 관할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조손가족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며, 인적·물적 자원의 미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경애, 2007).

정 책 과 제

본고는 조부모들이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보상감 포함) 및 조손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필자는 몇 가지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는 프로그램 개발과 응용이다.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을 전담할 경우 손자녀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조부모가 이와 같은 자원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나 재가복지센터에서 개인상담이나 부모교육, 멘토링 사업, 취업준비 청소년을 위한 취업알선 및 직업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할 때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대폭 경감될 수 있으며, 또 손자녀의 대인관계 문제를 줄이면서 학교에서의 적응력을 높여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조부모와 손자녀가 현실적 차원에서 법적 및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기초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완화시켜 조손가족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책적 개선이 절실하다.

둘째, 조손가족의 대다수 조부모는 손자녀의 부모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은 상태로 손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의 인력 부족으로 대리양육가정으로 지정되지 못한 조손가족들이 허다하다. 곧 그러한 가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위탁

손자녀 양육과 조부모 부담

가정으로 선정하는 행정서비스가 필요한데, 직접적인 현금급여 외에 저소득층을 위한 보육정책 확대는 영아나 유아, 미취학 아동을 키우고 있는 조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조부모의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조부모들에게 건강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함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예, 물리치료실)을 확충하고, 거동이 불편한 조부모나 농촌처럼 주거지역이 흩어져 있는 지역의 조부모를 위한 재가방문서비스 등도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 상황을 보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경우 그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조부모에게 자조집단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면, 조손가족의 조부모는 손자녀의 양육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공감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손자녀의 양육에서 경험하는 어려운 문제를 보다 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조부모들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활용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곧 조부모의 정서와 요구에 따른 여가프로그램들이 개발·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손자녀의 양육과정에서 나타나는 세대차 극복 및 세대간 대화 단절 방지 등 세대 간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조손가족 중에서 혼자서 손자녀의 양육을 맡고 있는 조모보다도 조부가 훨씬 적은 편이다. 그렇지만 손자녀의 양육 상황에서 조부는 가사활동, 신체적 기능, 경제적 자원 등 양육을 위해 요구되는 대부분을 조모에 비해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해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부들은 외부 도움이나 지지를 구하는데 소극적인 편이므로 손자녀의 양육에 절대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조부에게 전술했던 프로그램 참여 및 적절한 서비스제공이 보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과정에서 긍정적인 의미(예, 보람감)를 찾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강화시켜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세대간 유대 프로그램, 조손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구성원간 친밀감을 형성

하고 응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조손가족의 조부모들이 손자녀의 양육 상황에 보다 적극적이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조부모의 자아존중감을 지지해줄 수 있는 정서적 지원 등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아울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손자녀의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낸 후 그와 같은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기관끼리 정보교환을 하게 되면 양육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일곱째, 우리나라의 조손가족 정책은 손자녀의 양육에 대한 역할이나 부담을 대부분 조부모라는 가족에게 갖게 하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조부모는 경로연금 이외에 손자녀의 양육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 고령과 건강 약화로 부양을 받아야 할 입장에 처한 조부모가 오히려 손자녀의 부양책임을 맡고 있는데, 이와 같은 조손 가족은 한부모 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 가정, 독거노인 가정하고 달리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조손가족의 정책입안자들은 조손가족의 고유한 욕구를 고려하면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 *농촌 여성노인가구의 손자녀 양육 실태와 정책과제*. 대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김문정 (2006). *할머니의 손자녀 양육 경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영 (2001).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취업모를 자녀로 둔 조모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혜·김혜선 (2004).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4 (3), 153-170.
- 김소희 (1997). *모-조모 관계가 손자녀-조모 관계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훈 (2005). *조손가정의 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사례연구: 경북*

손자녀 양육과 조부모 부담

- 성주지역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은 (2002). 손자녀를 양육하는 빈곤지역 조부모의 심리·정서적 안녕과 영향 미치는 요인.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선 (2004). 조손가족 아동의 정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혜선 (2005). 농촌과 도시지역 손자녀를 전담 양육하는 저소득층 조부모의 정서적 고통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8, 341-378.
- 김효정 (2004). 가구유형이 경제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대 학자정학회지, 42 (12), 15-29.
- 남명숙 (1999).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생활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란 (1994). 부모-조부모 관계의 질이 청소년기 손자녀-친조부모 간의 유대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4 (2), 74-89.
- 박경숙·김영란 (2006). 손자녀 양육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1 (4), 109-128.
- 박경애 (2007). 조손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보상감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창기 (2002). 농촌지역 조부모-손자녀가족의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진희 (2007).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양육형태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9, 66-74.
- 배태순 (2000). 해체된 가정의 아동들, 그들은 어떻게 보호되고 있나: 국내 해체가정의 아동보호현황. 한국아동복지학, 9, 228-246.
- 서혜석 (2004).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pp. 409-439).
- 신은정 (2004). 조부모 손자녀 세대의 가족기능과 손자녀의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화용·조병은 (2004). 사회교환론적 관점에서 노모를 부양하는 성인 자녀가 지각한 보상, 대가 및 관계의 질: 한국과 재미교포 자녀의

- 비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 153-174.
- 옥경희(2005). 조부모-손자녀가족 조부모의 손자녀양육.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 (3), 103-114.
- 윤승희 (2005). 조부모가구 조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 전 북지역 조부모가구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현 (2005). 조부모 손자녀 양육 부담 및 보상감 연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연·김명숙 (1990). 한국 취업모 타아형태 변경양상과 그 문제점. *아동연구*, 5, 13-42. (숙명여자대학교 출간)
- 이희섭 (2005). 조손가족 조부모의 가족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화진 (2004). 조손세대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조부모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 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 란 (2002).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자아존중감 및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경 (2002). 저소득층 조손가정 여성노인의 우울감과 관련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2 (3), 207-222.
- 최혜지 (2006). 저소득층 조손가족의 조부모-손·자녀 관계 결정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6, 641-655.
- 통계청(2005).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
- Bowers, B., & Myers, B. (1999). Grandmother providing care for grandchildren: Consequences of various levels of caregiving. *Family Relations*, 48, 303-311.
- Brown, L. (2003). *Grandparents their grandchildren: An in-depth phenomenological study*. Doctoral dissertation, New Mexico University.
- Burnette, D. (1997). Grandmother caregivers in inner-city Latino families: A descriptive profile and informal social supports.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al Work*, 5 (3/4), 121-137.

- Burnette, D. (1998).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A school based small group intervention.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8*, 10-27.
- Burnette, D. (1999). Social relationships of Latino grandparent caregivers: A role theory perspective. *The Gerontologist, 39*, 49-58.
- Burton, L. (1992). Black grandparents rearing children of drug-addicted parents: Stressors, outcomes, and social service needs. *The Gerontologist, 32* (6), 744-751.
- Clingempel, W., Colyar, J., Brand, E., & Hetherington, E. (1992).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maternal grandparents: A longitudinal study of family structure and parental status effects. *Child Development, 63*, 1404-1422.
- Dowdell, E. (1995). Caregiver burden : Grandmothers raising their high-risk grandchildren. *Journal of Psychology Nurs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 33*, 3-8.
- Dressel, P., & Barnhill, S. (1994). Reframing gerontological thought and practice: The case of grandmothers with daughters in prison. *The Gerontologist, 34*, 658-671.
- Edwards, O. (1998). Helping grandkin-grandchildren raised by grandparents: Expanding psychology in the schools. *Psychology in the Schools, 35*, 173-181.
- Goodman, C. (2006).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The vulnerability of advancing age*. New York: Springer.
- Grant, R. (2000). The special needs of children in kinship care.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33* (3), 17-33.
- Hayslip, B., Jr., Shore, R., Henderson, C., & Lambert, P. (1998). Custodial grandparenting and the impact of grandchildren in the problems on role meaning. *Journal of Gerontology, 53* (3), 164-173.
- Jendrek, M. (1993). Grandparents who parent their grandchildren:

- Effects on lifestyl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 609-621.
- Jendrek, M. (1994). Grandparents who parent their grandchildren: Circumstances and decisions. *The Gerontologist*, 34, 206-621.
- Joslin, D., & Brouard, A. (1995). The Prevalence of grandmothers as primary caregivers in a poor pediatric population. *Journal of Community Health*, 20, 383-401.
- Kahana, E., & Kahana, B. (1970). Theoretical and research perspectives on grandparenthood. *Journal of Aging and Human Psychology*, 3, 98-105.
- Kathryn, W. (2000). Parenting matter: Parenting again, grand-parenting raising grandchildren. *Quarterly Newsletter*. Colorado State University.
- Kelly, S. (1993). Caregiver stress in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5, 331-337.
- Kelly, V., & Danato, E. (1995). Grandparents as primary caregivers. *Maternal and Child Nursing*, 20, 326-332.
- Kennedy, G. (1992). Shared activities of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Psychological Reports*, 70, 211-227.
- Kennedy, J., & Keeney, V. (1988). The extended family revisited: Grandparents rearing grandchildren. *Child Psychiatry Human Development*, 19, 26-35.
- Minkler, M. (1994). Grandparents as parents: The American experience, *Aging International*, 21, 24-28.
- Minkler, M., Driver, D., Roe, K., & Bedeian, K. (1993). Community interventions to support grandparents caregivers. *The Gerontologist*, 33, 807-811.
- Minkler, M., & Roe, K. (1996). Grandparents as surrogate parents. *Generations*, 20, 34-38.
- Minkler, M., Roe, K., & Price, M. (1992). The physical and emotional health of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in the

- crack cocaine epidemic. *The Gerontologist*, 32, 752-761.
- Moen, P., Robison, J., & Dempster-McClain, D. (1995). Caregiving and women's wellbeing: A life course approac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 259-273.
- Musil, C. (1998). Health,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in grandmother caregiver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19, 441-455.
- Roithmayr, S. (2001). *Emotional distress of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w York.
- Sands, R., & Goldberg-Glen, R. (2000). Factors associates with stress among grandparents raising their children. *Family Relation*, 49, 97-105.
- Smith, A., & Dannison, L. (2002). Education educators: Programming to support grandparent-headed families. *Contemporary Education*, 72, 47-51.
- Solomon, J. C., & Marx, J. (1995). To grandmother's house we go: Health and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raised solely by grandparents. *The Gerontologist*, 35, 386-394.
- Szinovacz, M. (1998). Grandparents today: A demographic profile. *The Gerontologist*, 38, 37-52.
- Strawbridge, W., Wallhagen, M., Shema, S., & Kaplan, G. (1997). New burdens or more of the same? Comparing grandparent, spouse, and adult-child caregivers. *The Gerontologist*, 37, 505-510.
- Troll, L. (1983). Grandparents: The family watchdogs. In T. H. Brubaker (Ed.). *Family relationships in Later life*. Beverly Hills, CA: Sage.
- U. S. Bureau of the Census. (2000). *Grandparents as caregivers*.
- Walker, A., Martin, S., & Jones, L. (1992). The benefits and costs of caregiving and care receiving for daughters and mother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7, S130-139.

**Caregiving Burden and Rewards
for the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Oh-Nam Kim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aebul University

Young-Ahm, Korea 526-702

This paper was to review articles dealing with caregiving burden and rewards for the grandparents who raised their grandchildren. The major difficulties that they suffered from caregiving their grandchildren were deterioration in health condition, lack of finance, low social support, changes in family relationship, psychological problems, and so on, whereas the rewards that they have experienced were physical, emotional, economical, and social rewards. A number of social welfare services and policy tasks for them, including many grants and educational programs, wer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empowering them.

(논문접수일: 2007년 10월 10일)

(수정논문접수일: 2007년 11월 9일)

(논문게재승인일: 2007년 11월 23일)